



총여 짱 **전이지숙** (세무 회계 98)
handamin@hanmail.net



부총여 짱 **양김유미** (영문과 99)
pooh2119@hanmail.net



사무 짱 **허고은** (중문과 00)
ginkgoland@hanmail.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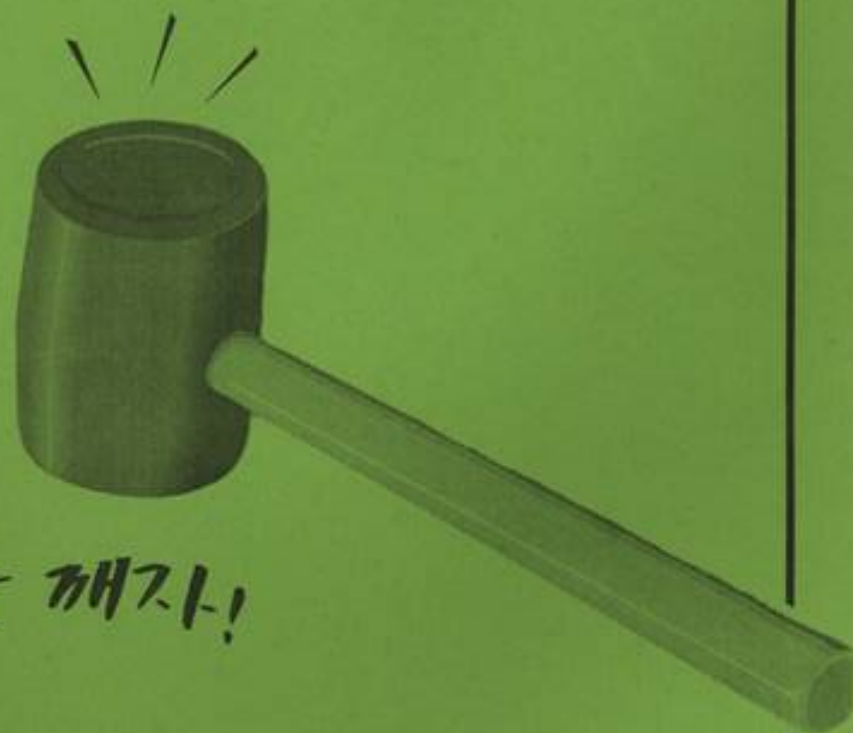
선전 짱 **홍희수진** (행정학 전공 00)
ipkenhama@hanmail.net

열려있는 커뮤니케이션

15 · 대 · 총 · 여 · 학 · 생 · 회

새내기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To 동국대 01 학번 새내기들
From 동국대 총여학생회



일상을 깨자!

새내기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공감의 가능성, 열려 있는 커뮤니케이션

15대 총여학생회입니다...

우선 여러분을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짹짹... ^ ^

벌써 여러 해 짹 새내기를 받고 있지만, 새내기라는 이름만 들어도 기분이 들뜨는 건 어쩔 수 없나봐요.



이제 여러분도 대학이라는 공간에 발을 들여놓으셨군요. 고등학교 때까지 누리지 못했던 갖가지 자유나 권리들을 누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 기분이 좋죠? 하지만 그만큼의 책임도 주어진다라는 걸 잊지 않는다면 멋진 대학생활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새내기 여러분들께 총여학생회라는 이름은 아마도 생소하게 들릴 것 같네요. 총여학생회는 동학의 여학우들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선거를 통해 구성되는 여학우들의 자치 공간입니다. 이제 새내기들도 올해 가을에 선거를 경험하게 되겠죠. 총여학생회는 여학우들을 대표하는 기관인만큼 여학우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여학우들을 하나로 묶어 우리의 목소리를 내는 공간이지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여학우들이 필요로 하는 복지 문제(여성학 강의나 화장실, 휴게실 문제 등등), 여성들만이 즐길 수 있는 여성문화를 찾아내고, 학내에 호를 만들어가고, 학내에 흩어져 있는 여성 문제들을 찾아내고 우리의 권리를 당당히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중심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구요.



여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가끔은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명절 때 여자들만 열심히 집안일을 한다든지, 수업 중에 선생님들이 여자에 대해 비하하는 발언을 한다든지, 지하철이나 길에서 음흉한 눈길을 받는다는든지, 대학이라는 공간에서도 그런 일들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우리의 할 일이 있는 셈이죠. 우리는 계속 우리의 권리 찾기를 해야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낼 때 총여학생회가 늘 함께 하려 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협력을 축하드리구요, 새터에서 많은 것들을 얻어가길 바랍니다.

물론 4년이란 기간 동안 더 많은 것을 얻길 바라구요.

그럼 다음에 총여실에서 새내기들을 많이 만날 수 있길 바라며, 이만...

... 광고 속에 드러난

가족!!!

현재의 사회는 끝을 알 수 없는 개인주의로 치닫고 있다.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가족을 이루고, 그 가족을 유지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정신적 물질적 공동체인 가족 안에서 제대로된 가족애를 실현하기 위해 개인들은 사회에서 강요하는 그리고 대중매체를 통해 새겨시키고 있는 새로운 가족 사랑의 방식을 주입 받고 있다. 과도하게 정서적으로 변해가는 가족의 목적, 그리고 가족의 유지 방법!!!

과연 우리 사회에서 가족은 우리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살 길의 마지막 보루가 될 수 있을 것인가...



모유를 많이
못먹었다는 미안한 마음에

우리 사회의 가부장성~

남자의 할 일과 여자의 할 일은 따로 있다 ???

어릴적부터 여자라는 이유로 인형을 건네 받고 남자라는 이유로 장난감총을 가지고 놀지는 않았습니까? 분명 태어날적부터 자신의 역할과 행동을 문서로 건네받고 약속을 하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남자는 이래야 하고 여자는 이래야 한다는 이런 이분법적 생각 옳다고 생각하시나요?

누구든 행동이나 말을 할 때 남성과 여성이라는 이유 때문에 제약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자신의 자유를 침해당하는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런 것들을 잘 모르고 있죠.

늘 우리가 접하는 대중 매체에서는 그것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으니까요...



사람이 무슨 물건이야?

요즘 세상은 참 무서운 세상입니다. 사람도 마치 물건인 양 전시하고, 사고 파는 세상이니 말입니다.

특히 여성들은 마치 마네킹인 양 TV에 나오고 있죠?

그걸 보면서 가끔은 내 몸이 그런 물건인 듯한 느낌이 들어 섬뜩해질때가 있지 않나요?

여성의 몸매를 강조하는 장면, 못 생긴 여자를 등장시켜 웃음을 유도하는 장면... 상품 파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이런 광고들의 이면에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해서 여성을 인간이 아닌, 단순한 성적 매력을 강조하는 도구로 쓰고 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이런 광고를 시청하면서 또 한 여성의 성 상품화를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진 않나요?



성폭력에 대한 이야기들...



성폭력이 무엇인가?

사람들은 성폭력이라고 하면 보통 강간이라는 것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사실 성폭력은 개인의 자유로운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입니다. 따라서 성폭력은 성을 매개로 한 모든 정신적, 언어적, 신체적 폭력을 의미합니다.

사실 성폭력을 강간으로 한정짓는 것은 지극히 남성 중심적이고, 성기 중심적인 사고입니다. 하지만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이나 생각없이 하는 말들 때문에 기분이 상하거나, 매우 불쾌했던 경험이 있었던 사람들은 단지 강간만이 성폭력이라 하는 것이 피해자에게 얼마나 관대한 관점인지 알 것입니다. 전철에서 누군가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나를 아래 위로 훑어볼 때 기분이

어떨까요? 매우 불쾌할 것입니다. 내가 염색을 하고 전철을 탔을 때 누군가 나를 욕하

거나 쳐다보면 내 자유인데 무슨 문제냐고 따지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것처럼, 그렇게 내 몸을 아래 위로 훑을 때 느끼는 불쾌감은 내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동약의 새내기들은 성폭력이 강간만을 말하는 거라는 말은 하지 않겠죠?

성폭력에 대한 오해들

1. 나에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폭력이 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성폭력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성폭력의 피해자는 많습니다. 여성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당하고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굳이 피해자를 많이 만들 필요는 없다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의 해결은 성폭력을 강간으로 한정 짓는 것이 아니라 인식의 전환과 서로에 대한 성적 자기 결정권을 존중함으로써 성폭력 사건을 줄이는 것에 있습니다. 피해자가 많으면 그만큼 가해자도 많이 있는 것이니까요. 피해자의 범위를 넓힌다는 것은 그 피해자들이 이때까지 강간 당한 여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죄의식 속에 가두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의 권리를 보다 당당하게 말하자는 것입니다.

2. 남성의 참을 수 없는 성충동 때문에 일어나니까 어쩔 수 없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20세기 성 과학자들이 의해 이것은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 밝혀진 상황입니다. 성충동이 일어나는 원인 역시 시대와 상황에 따라 각각 다르게 나타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강간의 경우 계획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가해자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성폭력을 하게 되는 동기는 자신에 대한 불만이나 분노, 소외감의 표출일 때가 많고, 때로는 자신의 남성다움을 과시하기 위한 경우가 많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남성의 성은 억제할 필요도 없을 뿐 아니라 여성의 성을 남성의 소유로 보는 남성중심적인 성문화가 원인이 되는 것이죠.

3. 여성들의 심한 노출이 성폭력의 주범이다.

성폭력은 노출이 심한 여성에게만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조선 시대에 심한 노출을 하고 있는 여성을 보며

성충동을 느끼는 남성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미친 사람 보듯 했을테지요. 피해자의 옷차림이나 언동으로 성폭력의 책임을 전가하거나 가해자의 행위를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4. 낮은 사람이 성폭력의 가해자다

아닙니다. 상담소의 통계에 따르면 이는 사람에 의한 강간이 전체의 70% 이상이고, 강간 외의 언어 성희롱의 경우는 대부분 친한 사람에 의해 허물이 없다는 이유로 가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통념 역시 성폭력을 남성의 성충동에 의해 일어나는 우발적 범죄로 보는 인식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늘 조심하자는 것이 아니라, 남성 중심적인 성에 대한 관념을 조금씩 바꿔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5. 성폭력의 가해자 = 남자, 피해자 = 여자 ???

남자도 성폭력을 당합니다. 넓게는 여성스러운 남성들에게 하는 "남자가 그래야 되잖나?"는 발언에서부터 여자 선배나 직장 상사에게 당하는 언어 성희롱이나 신체 접촉 등 권력을 여성이 쥐고 있는 상황이라면 남성이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은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이 권력을 가지지 못한 사람에게 가하는 폭력으로 가해자는 늘 남성이고 피해자는 늘 여성이라는 공식은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사회에서 남성이 권력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남성보다는 여성이 많이 피해를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성폭력에 대한 논의가 각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의 문제라는 인식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라면, 기본적으로 남녀의 대결구도가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가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 해야 할 일

1. 상대방에게 성적 행동을 강요하지 않는다.
2. 상대방의 거부 의사를 맥면 그대로 받아들인다.
3. 상대방의 침묵을 동의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5. 평소 충분히 의사소통하도록 한다.
6. 늘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는 자세를 갖는다.
7. 음담패설이나 여성이나 남성을 성적으로 대상화하거나 상품화하지 않는다.
8. 성폭력의 개념을 명확히 한다.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 해야 할 일

1. 평소 자기 주장을 분명히 하는 태도를 갖는다.
2. 성에 대한 가치관, 행동 범위에 대한 결정기준을 갖는다.
3. 불쾌한 성적인 접촉이나 상황에서 분명히 거부 의사를 밝힌다.
4. 비상금이나 혼자 돌아올 수 있는 대책을 준비해두는 습관을 갖는다.
5. 성폭력에 대한 충분한 예비 지식과 대처 방법을 숙지 한다.



동악에서 내가 실 수 있는 곳은 어디에...

갑자기 생리를 한다... 배와 허리가 너무 아프다... 머리로 지끈 거리고... 학생회 실로 가볼까? 아냐, 거긴 본명 남자에들이랑 선배들이 피워대는 담배로 너구리 굴이 되어 있을꺼야. 그렇다고 밖에 나갈수도 없고... 어떡하지??

어떡하긴요. 이곳으로 오세요. 여학생 여러분들을 위한 휴게실입니다——!!
동국관 5층, 계산관 2층, 중앙도서관 2층——

에게—!! 이것밖에 없어? 라고 생각 하시겠죠? 하긴 그렇게 생각 하시는 게 당연하답니다.

이제 동악의 여학우의 수는 7천명을 넘어가는데, 여학우들을 위한 휴게 공간은 달랑 3개 밖에 없으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학우 여러분들을 위한 총여학생회에서는 학우 여러분들이 이것 저것 눈치 보지 않고 쓸수 있는 공간을 확보 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전에 우리들을 동악의 꽃뚱으로 바라보는 인식을 고쳐놔야 하겠죠? 그것은 총여학생회에서만 하는게 아니라 여러분 모두의 몫입니다.

생리통이 와도 부끄러워하거나 숨길필요 없이 '나 생리통 때 문에 아파—!!' 라고 당당하게 말 할수 있는 그날까지... 여러분 화이팅——!!



여성학 도서관



“여성학? 어려울 것 같아...”, “여성학? 보통 사람들하고는 상관없는 것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학생회관 1층 총여학생회실로 오세요.

다양한 여성학 서적들이 가득!!

여성학 관련 논문들도 구비되어 있습니다.

2학기엔 여성학 교양 과목이 있습니다. 시험볼 때, 레포트 쓸 때에도 도움이 되겠죠^^

대출 권수 제한은 없구요, 대출 기간은 2주일입니다.

대출하실때는 학생증? 사진? 주민등록증??? 은 필요없구요^^, 대출 카드에 대출 내역을 기록하면 끝!!

그럼 여성학 도서관 책 소개 잠깐 할까요?

이갈리아의 딸들

(게르그 브란튼베르그/노옥재 외 4명 번역/황금가지)

‘남자와 여자의 성역할이 바뀐 사회가 있다면?’

여성이라면 한번쯤 생각해보았을 사회, [이갈리아의 딸들]은 바로 그런 사회의 모습을 담은 소설입니다. 주인공 페트로니우스는 왜소한 체격의 소년(소년). 그의 눈을 통해서 본 사회는 남성에게 부당한 압력을 가하는 사회입니다. 그는 점점 이러한 사회구조의 부당함을 깨닫고 친구들과 뜻을 모아 이러한 사회를 뒤집는데 성공합니다. 이 소설에서의 남자(소년)들의 모습은 곧 우리 사회의 여성들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이 책은 여성운동이란 무엇인지, 왜 여성운동이 필요한지를 말해주는 책입니다. 여성운동이란, 결국 남녀 모두가 평등한 인간으로써 살아가기 위한 것이라고 말이지요.

남성의 과학을 넘어서: 페미니즘의 시각으로 본 과학, 기술, 의료

(오조영란, 홍성욱 엮음/창작과 비평사)

“여자는 생물학적으로 남자보다 약할 수밖에 없어.”

혹시 이런 말을 듣고 울분이 치밀어오른 적이 있나요? 보통 생물학.. 운운하며 과학을 거론하는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여성들은 ‘신체적으로 다른 건 어쩔 수 없지.’ 하며 침울해지기 마련입니다. [남성의 과학을 넘어서]는 가치 중립적인 듯 보이는 과학기술이 정치적·문화적 자장 안에서 어떻게 여성을 억압하는 도구로 바뀌는지를 말해줍니다. 흔히 여성차별의 근거로 활용돼온 두개골학과 사회생물학, 성호르몬학을 논리적으로 반박하여 결국 이 글은 남성/여성이 사회적으로뿐만 아니라 생물학적으로도 아무런 질적 차이도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과학은 절대적이다’란 생각을 가지신 분이 있다면 꼭 권해 드리고 싶은 책입니다.



아울아리를 모집합니다!!

어떤 아울아리의 일기..

오늘은 '결혼'이란 주제로 세미나를 했다. 결혼이란 사랑하는 사람끼리 행복하게 살면 되는거라고 단순히 생각했었는데..내가 몰랐던 많은 부분을 알게 되었다. 항상 느끼는 일이지만 공부할수록 내가 모르는 사실을 많이 알게 된다. 때로는 어려운 내용도 있지만 결국 내가 겪거나 겪을 일이거나,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인 것이다. 내일부터는 총여학생회에서 하는 성폭력 공청회 선전물을 만들기로 했다. 대자보에 글씨도 쓰고 게시판마다 돌아다니면서 만든 자보들을 붙일 예정이다. 비록 큰일은 아니지만 여성 권리 향상을 위해 내가 힘이 된다는 사실이 기쁘다^^..

드라마 '여자만세'를 보면서 감동을 느끼신 분
자유롭고 당당한 여성이 되고 싶으신 분
여성 문화에 관심 있으신 분
여성학에 관심 있으신 분
총여학생회 일을 함께 하고 싶으신 분

학생회관 1층 총여학생회로 오세요-

아울아리는 총여학생회 산하의 여성학 학술 소모임으로 여성학 공부를 하면서 총여학생회 사업을 함께 꾸려나가는 사람들입니다.

1주일에 한번 여성학 세미나를 중심으로, 총여학생회 사업을 만들어나가는 멋진 사람들이죠.
당신도 아울아리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곧 학생회관 1층 총여학생회 문을 두드리세요. 전화번호는 2260-3614입니다.
그럼.. 기다려주세요^^



총여 홈페이지

총여학생회... 문을 열고 들어오기가 부담스러우세요?

그렇다면 사이버상에서 총여학생회를 만나보세요!!

<http://home.dongguk.ac.kr/~dguchw/> 바로 여기

문을 들어오면 우선 간단한 총여 소개와 공지사항들이 있습니다.

왼쪽의 메뉴를 보면 우선 누구나 글을 올릴 수 있는 자유게시판이 있습니다. 여학우 복지 문제, 성폭력 상황, 여성 권익 향상에 대한 주장 등 여성에 관한 내용이나 총여학생회에 문의할 점 등을 적어주세요^^

그 다음에는 총여에서 일하는 집행국들의 방인 집국방이 있습니다. 총여학생회에서 어떤 사람이 일하고 있나 궁금하시다면 클릭!

그 아래에는 정보가 있는 자료실이 있습니다.

여성 관련 영화, 연극, 노래 등이 소개되어 있는 문화 자료실과, 여성학에 관한 정보가 있는 여성학 자료실, 그리고 외부 행사 안내란이 있습니다.

그 아래의 아울아리는 총여 산하의 여성학 학술 소모임인 아울아리 홈페이지 링크입니다. 총여에서 여성학 공부도 하고 총여 행사를 만들어가는 아울아리들의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학우들의 생각을 알아보는 설문조사. 여학우들의 솔직한 생각을 꼭 찍어주세요.

마지막으로 유익한 여성사이트 링크가 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

직접 들어와서 둘러보시는 것이 가장 좋겠죠?

글 한마디라도 남겨주심 감사^^

학우 여러분과 함께 하는 총여학생회 홈페이지 소개였습니다^^



이웃나라 여성나라



달나라 딸세포

<http://dalara.jinbo.net>

페미니즘 웹진!! 딸들의 눈으로 보는 세상읽기
색다른 사이트를 원하신다면...



언니네

<http://www.unninet.co.kr>

여성주의 문화 웹진, 다채로운 내용의 여성 사이트
동국 총여에서 강추합니다...
회원가입은 무료

언니네



대안민국

<http://members.tripod.lycos.co.kr/stopk/>

21세기 진정한 남녀평등을 위한 페미니즘 웹진.
해러디, 자료실, 문화 소개 등 다양



한국 여성의 전화

<http://www.hotline.or.kr>

여성에 대한 가정 폭력, 성폭력 추방을 위한 여성 인권 단체
성폭력 대처법 및 상담 기관 연락처 제공

한국여성의전화연합 Korea Women's Hot Line



여성부

<http://www.moge.go.kr>

여성 정책을 종합적으로 기획, 조정하는 대통령 직속 행정 기관
내용 - 남녀 차별 신고 센터 운영, 성희롱 예방 교육 등



hi! 난 총여랑 한다
새내기 여러분께
총여를 소개합니다

나이 21 생일날거~ 무거울거 둘



총여 부랑 뭘~
정리정리 인제라도 하려

나이 22 특거~ 학교의 평등지수
재능 구사... 현재 재학생 신이인 애매!!



총여 새국장
아계장

나이 23 특거~ 이백사를 능가하
는 현명한 음주아무!!



총여 새국장
아계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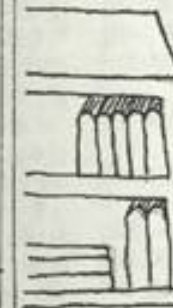
나이 24 정년연령 (10대??)
백음에 물레가 많음!



총여에는 ...
여방학 공부를
위해 모인
사람들의
'총여'가 있어



1...2...3
음드!!



여방학, 도판도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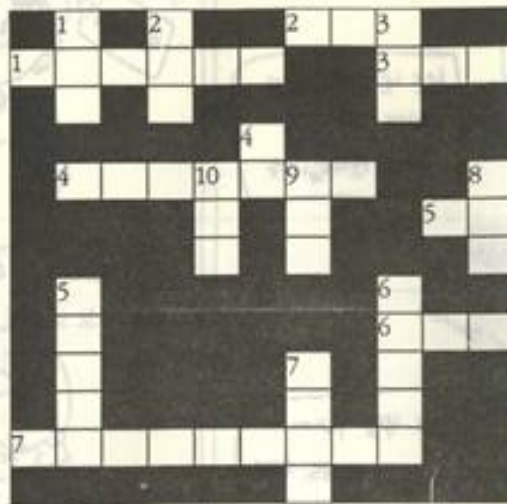
동국 총여학생회는
새내기 여러분을 위한
새내기 여러분에 의한
공간입니다...

THE END ~

유근

한번

풀어봐~



가르침

1. 인터넷 상에서 이루어지는 폭력으로 상대방이 싫어하는 음란성 메일이나 쪽지 등을 보내거나 여성의 성을 비하하는 홈페이지들을 제작하여 유포하는 경우들을 포함한다. 이것은 명백히 성폭력의 일종으로, 이것을 행한 사람의 ID나 IP를 사이버 경찰서에 고소하면 ID가 삭제되는 처벌을 받는다.

2. 이것은 다른 사람의 성행위를 엿보거나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것을 보고 성적 흥분을 느끼는 증상이다. 일명 훔쳐보기라고도 한다. 미니스커트를 입고 가는 여성의 몸매를 훔쳐본다거나 야한 잡지책을 본다거나 하는 것은 엄밀히 상대방이 모르는 성폭력이라 할 수 있다.

3. 무리한 다이어트로 인해 음식물을 보거나 음식의 냄새를 맡기만 해도 구토 증세를 유발하는 증세.

4. '내 몸은 나의 것'이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이다. 여성이든 남성이든, 자신의 성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자신이다. 자신의 성을 비하한다거나, 동의 없이 성을 매개로 폭력을 가하면 그것이 바로 성폭력이 되는 것이다. 예전에는 여성의 정조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성폭력에 대한 법 조항이 있었으나, 오늘날에는 이 권리를 가지고 성폭력에 대한 법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되고 있다.

6. 예전에 중세 시대 때 다른 여성과 다른 특색을 보이거나 하면 00화형식을 통해 아들을 화형에 처했었다.

7. 현재 남녀 차별의 현실을 직시하고 이것을 현상학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고찰하는 학문으로서, 사회에서 여성이 어떤 위치에 놓여 있는지, 그리고 이것을 어떤 식으로 극복해 나가야 할 지에 대해 다루는 학문.

8. 여성의 성을 전시하여 그로 하여금 성 상품화를 조장하는 미스코리아대회와 같은 미인대회를 반대할 목적으로 생겨난 행사이다. 이 대회는 성 상품화 현상, 그리고 여성의 성이 비하되는 것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할 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해주려고 한다.

세로말

1. 바이러스 면역 결핍증으로서, 수혈이나 타액의 교환 등을 전염경로로 하고 있다.

2. 동성 간의 사랑... 사회에서는 이성간의 사랑만을 정상적인 것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그것은 어떤 보면 사회화 과정에서 이루어진 강제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3.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해결해 나갈 중요한 근거이다. 특히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가해자가 사건을 인정하지 않을 시, 사건을 좀더 명확하게 규명하여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된다. 그리고 이것이 없다면, 성폭력 사건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사건이 발생할 때 이것을 확보하고 보존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4. 성의 이중적 잣대로 여성을 흔히 이것을 유지하고 있는 여성과 그렇지 않은 여성으로 분류한다. 성결대에는 순결학과가 있고, 그곳에 입학하기 위해서 00선언을 한다고 한다.

5. Sex와 Gender 이후 발생한 개념으로서 신체적 차이, 성욕, 욕구, 환상, 출산 능력, 성별 정체성들과 같이 서로 다른 수많은 신체적, 심리적 기능성들이 한 데 묶여 고인된 역사적 구성물이다. 우리의 신체적 쾌락과 욕망을 살아내는 문화적 방법이기도 하다.

6. 여학우들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동양내 여학우들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여성의 힘을 한데 모아, 학교 내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여성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학생회 조직이다.

7. 총여학생회내에 있는 학술 소모임이다. 주로 세미나를 통해 여성학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하게 되고, 나아가 세미나를 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여성 운동에 참여하면서 이론만이 아니라 실천적인 학문으로서의 여성학을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든 소모임이다.

8. 여성이 순결한지를 재는 잣대로 이용되어 왔던 신체 조직의 일부이다. 이것은 사람이 따라 다른 조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의 파열로 인한 출혈로 상관계의 유무를 알 수 있다는 것은 여성에게 순결을 강요하는 이데올로기일 뿐이다.

9. 중세 시대에 남편들이 전쟁에 나가거나 원거리로 집을 나설 때 부인들에게 채우던 것이다. 단순히 부인을 보호 하다가 보다는, 부인을 자신을 물건으로 생각하여 자신의 물건에 흠집이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채우도록 했다고 하는 게 맞는 것일 것이다. 이러한 관념은 지금에도 남아 있어, 중동 지방에서는 여자 아이들의 음핵을 제거하는 할례를 하기도 한다.